

추경, 선의의 역설마저 안보인다



기고

오영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정책비서관

고대 로마의 최고 권력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사회의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권력 강화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공화주의 전통을 위협하고 사실상의 독재를 추진한다고 생각한 원로원 의원들은 심하게 반발하며 카이사르에 대항했다. 이후 로마는 내전에 빠졌고, 이는 결국 공화정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부터 유래된 개념이 바로 '선의의 역설'이다.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도,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善意)였을 수 있다는 것. 현대 정치에서는 과도하게 이상만 좇는 행태를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곤 한다.

우리는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는 사례를 끊임 없이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선한 의도'마저 안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박홍근 장관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책의 타이밍과 구성, 그리고 재정 규모를 종합해 보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속도전에 나선 것은 정책적 필요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지금 복합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임기 초부터 추진된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확장재정 기조가 물가를 자극했고, 민생경제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서민과 청년의 신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유가 폭등, 집값 폭등, 쌀값 폭등까지. 5대 폭등 속에서도 정부는 포퓰리즘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이 또 26조 원 추경이라니,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세부 항목을 들여다 보면 더 가관이다. 영화, 공연, 숙박 할인같은 선심성 예산부터 놓여준 기본소득 예산 706억 원까지. 이게 과연 전쟁용 추경인지, 지선용 추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확장 재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과 의도는 분명했다. 경제를 살리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 자체는 인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과가 실패로 이어졌을 때도 '선의의 역설'이라는 평가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대놓고 정치적 목적의 '현금 살포'라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각 3.0%, 3.6%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부채만 압도적으로 높은 9.8% 늘어난 것이다. 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확장 재정이 반복될 경우,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된다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빚더미 국가가 되고 만다. 국민들의 머리 속에 "어쩌면 정부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전에 국가 재정을 불모로 한 때표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정책비서관

울산 석유화학 재편, 왜 제자리걸음만 하나



기지수첩

원관희

(산업부)

울산 석유화학단지 재편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급 과잉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작 부담은 누가 질 것인지를 두고 업체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논란의 중심에는 에쓰오일의 사한 프로젝트가 있다. 에쓰오일은 올해 말 가동을 앞둔 사한 프로젝트를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유와 부산물을 곧바로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TC2C 공정을 갖춘 신규 고효율 설비인 만큼 기존 NCC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신

규 설비라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는 배경이다.

에쓰오일은 이번 재편 논의의 목적이 단순 감축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경쟁력이 낮은 노후 설비를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의 시선은 다르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생산능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만 신규 설비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에서 비켜서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사한 프로젝트는 아직 가동도 하지 않은 설비다. 기존 공정보다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적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설비 업체들은 자신들만 먼저 생산능력을 줄이는 방식

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에쓰오일 역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스스로 접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없다. 결국 울산 논의는 기술이나 효율성 논쟁을 넘어 구조조정에 모두가 어느 정도의 책임과 부담을 나눠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중동발 원유·나프타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업계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울산단지의 구조조정이 빨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금 막혀 있는 것은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누구는 아프게 버티고 누구는 비켜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울산단지의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선 업체 간 신뢰 회복이 먼저다. 무임승차 한다는 인식을 주기보다는 같이 구조 조정에 참여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wk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7일 (음 2월 20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지금은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60년생** 전업이나 개업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72년생**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84년생** 먼저 정한 바를 관찰하세요.



49년생 조금만 더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61년생**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3년생** 심신이 고달픈 날입니다. **85년생** 금전운은 길하나 지출이 있게 됩니다.



50년생 의존심은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2년생** 누명이나 사기를 조심하도록 하세요. **74년생**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6년생** 긴 안목을 가지도록 하세요.



51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63년생** 현실적인 소망부터 하나씩 이루도록 하세요. **75년생** 작은 상처라도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87년생**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세요.



52년생 다 끝난 일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64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76년생** 마음이 잘 맞는 주위 사람과 상의하세요. **88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53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세요. **65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세요. **77년생** 주위의 유혹이 많은 날입니다. **89년생** 과욕은 금물임을 기억하세요.



54년생 심기가 편치 못한 날입니다. **66년생**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하세요. **78년생** 돈이 막히는 날이니 잘 살펴주세요. **90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55년생 냉철한 이성으로 오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7년생** 중요한 협상은 내일로 미루세요. **79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91년생** 자기 발전을 위해 매진하세요.



56년생 큰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68년생** 강직하게 밀고 나가도록 하세요. **80년생**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실이 맺어집니다. **92년생** 재정적으로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57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69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81년생**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93년생** 분주하고 소독이 없습니다.



58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되니 노력의 값진 대가입니다. **70년생** 마음을 비우고 여유를 가지도록 하세요. **82년생** 반가운 벗이 찾아오게 됩니다. **94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59년생 큰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71년생**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83년생** 사랑과 우정 사이, 가족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95년생** 원하는 것 중 작은 것은 이루어집니다.



김상회의四季

역강부약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미래가 막막할 때 사주팔자를 찾곤 한다. 그러다 자기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탄하는데 사주에 살이 있다거나 재물운이 약하다는 식의 풀이를 듣고는 낙담하는 것이다.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 명리학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저 기뻐할 사주도 낙담할 사주도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서로 타고난 기운이 다를 뿐이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르듯 사주의 기운도 서로 다르다. 사주팔자는 여덟 글자로 이루어진 에너지의 배치도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명이란 모든 것이 결정된 결말이 아니라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어떤 기운이 넘치고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균형의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사주가 결함 있는 사주라는 점이다.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와 취약한 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걸 보여줄 뿐이다. 명리학의 핵심은 역강부약이다. 넘치는 것은 털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조화가 있다. 사주에 불이 너무 많다면 차분한 물의 기운을 가진 취미를 갖거나 냉철한 조언자를 곁에 두어 열기를 식히면 된다. 반대로 기운이 너무 약하다면 꾸준한 공부나 운동으로 내면의 근육을 길러서 보완하면 된다. 날카로운 칼의 기운을 연마해 수술칼로 쓰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의 칼로 쓰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운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주되는 멜로디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팔자가 사납다는 말로 운명의 흐름을 안 좋은 쪽으로 스스로 끌고 갈 이유가 없다. 나에게 좋은 기운을 잘 활용하면 어떤 사주가 됐든 인생을 잘 풀리는 쪽으로 끌어갈 수 있다. 역강부약 넘치는 것을 털어내고 부족한 것을 채우면 조화를 이루기 마련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4	8		
1				4	
	8	4	6	1	9
2				5	9
	8			7	
3	9				6
	2	6	7	3	1
	3				8
6		3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2	9	6	8	1	9	8
8	6	9	2	7	1	8	2
9	1	8	2	9	8	2	6
9	7	8	1	2	6	9	8
1	2	6	8	9	8	7	9
6	8	9	9	8	7	2	1
2	9	6	1	9	7	8	2
8	9	7	8	2	6	9	2
2	8	1	7	9	2	9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	2017년3월09일 제199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